

“Bringing Down the House” --- Sample Translation in Korean
 뒷 표지

“카지노 무너뜨리기 (or 카지노 공략)” 에
 쏟아진 각계의 찬사

“엘모어 레너드의 작품세계를 연상시키는
 풍부하고도 날카로운 어휘력을 자랑하는
 대화로 가득찬 옥탄가 높은 이야기 , 미국의
 나스카 자동차 경주 대회를 보는 듯한
 숨막히게 빠른 플롯 전개 과정 , 카지노
 테이블 양쪽에 자리한 인물 하나 하나가
 마치 인사이드 스트레이트 (역주 : 포커에서
 스트레이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4장의
 카드가 있고 중간에 들어갈 한 장의 카드만
 필요한 패) 같이 생생하며 이들은 스피드를
 복용한 딜러처럼 재빠르게 패를 던지고
 점수를 계산한다 . 위기를 기회로 거머쥐고 ,
 은행하나 규모의 판돈을 걸며 , 달러를
 새발의 피만큼도 여기저기 않는다 .”
 -----로렌조 카아카테라 , “갱들과 거리의
 소년들 ” 의 저자

“저자 벤 미즈릭은 우리가 늘 가고자
 꿈꾸는 , 그러나 운 좋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극히 드문 곳으로
 독자들을 데려간다 . 바로 카지노를 이기고
 돈을 따는 것이다 . 이 자유분방하고
 소설보다도 더 진기한 이야기는 마치 로빈
 후드와 “오우션즈 일레븐 ”의 래트 팩
 패거리들을 하나로 합친 것과 같다 .
 부자에게서 훔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던 우리의 영웅이 이제는
 부자들에게서 훔쳐서 , 흠 , 자신이 같은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이
 20세기판 의적의 이야기에 열광할 것이다 .”
 -----마이클 카포조 , 뉴욕 타임즈 베스트 셀러
 “해변 가까이 ”의 저자

본문 중에서 (발췌)

케빈은 오백달러 짜리 칩 세개를 집으면서
 마치 칵테일 웨이트리스를 찾는 척 주변을
 둘러보았다 . 결눈질을 하다가 자신과 한
 팀인 “스파터 (역주 : 블랙잭 테이블의 패가

좋은지 나쁜지를 미리 살펴보고 알려주는
 역할)”를 발견했다 . 빨간머리의 미녀로
 가슴선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 아무도 그녀가
 MIT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우등생으로 다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다 . 그녀는 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블랙잭 테이블 가까이
 있었지만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
 또한 유지하고 있었다 . 그녀와 시선을
 마주친 케빈은 그녀가 곧 보내올 신호를
 기다렸다 . 오른팔을 구부리면 판돈을
 두배로 늘리라는 신호이고 팔짱을 끼면
 가진 돈을 모두 걸라는 신호 , 그리고 양팔을
 옆으로 늘어뜨리면 거는 돈을
 최소화하라는 신호가 된다 .
 하지만 그녀는 이 세가지 중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 대신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것이었다 .
 케빈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 보았다 .
 자신이 그녀의 신호를 맞게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 다음 순간 , 그는 딱 칩들을
 재빨리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
 머리카락 속에 들어간 손은 단 한가지 만을
 의미했다 . 카지노를 떠나라 . 지금 당장 .
 감사의 말 (or 도움주신 분들께)

사이먼 앤드 슈스터의 훌륭한 두 분의
 편집자 , 도미니크 앤푸조와 레슬리
 메레디스에게 제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편집과정내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도로시 로빈슨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 내 뛰어난 출판대리인 데이비드
 빌리아노 (빅), 또 빅의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는 마이크 해리엇과 제이슨
 솔에게도 빛을 많이 졌다 . 이 프로젝트가
 살아남도록 헐리우드 구조속에서 잘
 이끌어준 인테버의 브라이언 립슨과 이
 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준 이글 코브
 엔터테인먼트의 제이 샌더스에게도
 감사드린다 .

또한 , 여기 보스턴의 “카드를 세는 ”
 친구들의 믿기지 않을 정도의 협조와
 전문적 기술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쓰여질

수 없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볼
기회가 없는 라스베가스의 한 면을 만나게
해준 친구들 , 정말 고맙네 .

언제나처럼 , 부모님과 형제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감사한다 . 그리고 또한 타냐
첸에게도 : 아름다운 타냐 , 그대는 내
눈속에서 네온사인처럼 반짝인다오 .

제 1 장 (or 첫번째)

시각은 10분전 새벽 3시 , 케빈 루이스는
금방이라도 꿈아떨어질 것처럼 보였다 .
그의 앞 테이블에는 빈 마티니 잔 3개가
놓여있고 , 양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그는 손에 든 카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 딜러는 아직도
인내심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마티니 잔들 앞에 잔뜩 쌓인 보라색
 칩들때문이었다 . 그러나 다른 도박객들은
 점점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 그들은 이 젊은 친구가 어서 돈을
 걸던지 아니면 딴 돈을 싸가지고 의자밑에
 놓인 낡아빠진 운동가방에 넣어서
 보스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 제기랄
 그만하면 충분히 따지 않았나 ? 대학교
 졸업반 학생이 3만불이나 되는 돈을 어디에
 쓸 거란말야 ?

테이블의 분위기를 눈치챈 딜러가
 블랙잭 슈 (Blackjack Shoe:역주 :블랙잭 게임에서
 딜러가 카드를 한장씩 빼서 주는 플라스틱
 상자 . 보통 카드를 여러 세트 가지고 하는
 멀티플 덱 (multiple deck) 게임에서 쓰인다)를
 마침내 가볍게 두드렸다 . “손님 ,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겠습니다 . 먼저 판은
 굉장했습니다 . 한 판 더 하시겠습니까 ?”
 케빈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 진실을 말하자면 , 그의 진짜
 이름은 케빈이 아니었다 . 거기다가 그는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 . 뺨의 불그스레한
 취기는 사실 호텔방에서 그려놓은
 것이었다 . 또한 , 3만 달러 상당의 칩들은
 그의 손을 떨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지만
 그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은 안되었다 . 그들은 그의 의자 밑에
 놓여있는 낡아빠진 운동가방속의
 내용물에 훨씬 큰 관심을 보일 것이었다 .

케빈은 긴장을 풀려고 숨을 깊이
 쉬었다 . 똑같은 상황을 벌써 수도 없이
 겪었고 오늘밤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었다 .
 그는 오백달러 짜리 칩 세개를
 집으면서 마치 칵테일 웨이트리스를 찾는
 척 주변을 둘러보았다 . 결눈질을 하다가
 자신과 한 팀인 “스파터 (역주 :블랙잭
 테이블의 패가 좋은지 나쁜지를 미리
 살펴보고 알려주는 역할)”를 발견했다 .
 빨간머리의 미녀로 가슴선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
 아무도 그녀가 MIT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우등생으로 다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다 . 그녀는 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블랙잭 테이블 가까이 있었지만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 또한 유지하고
 있었다 . 그녀와 시선을 마주친 케빈은
 그녀가 곧 보내올 신호를 기다렸다 .
 오른팔을 구부리면 판단을 두배로
 늘리라는 신호이고 팔짱을 끼면 가진 돈을
 모두 걸라는 신호 , 그리고 양팔을 옆으로
 늘어뜨리면 거는 돈을 최소화하라는
 신호가 된다 .
 하지만 그녀는 이 세가지 중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대 . 대신 ,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것이었다 .
 케빈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 보았다 .
 자신이 그녀의 신호를 맞게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 다음 순간 , 그는 탄 칩들을
 재빨리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
 “오늘밤은 이 걸로 끝내야겠군 .” 취한 듯
 혀 꼬부라진 소리로 딜러에게 말을 건넸다 .
 “마지막 마티니는 마시지 말 걸 .”
 걸으로는 태연했지만 사실 그는
 속으로는 온 몸에 불이 붙은 심정이었다 .
 스파터를 다시 한번 걸눈질했다 . 그녀의
 손은 아직도 빨강머리속에 깊숙히 묻혀
 있었다 . 맵소사 . 지난 여섯달 동안 , 케빈은
 스파터가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 그 신호는 현재의 판세하고도 ,
 케빈으로 하여금 1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동안 3만불을 따게 해준 정확한
 러닝카운트 (역주 : 매번 새로 카드를 섞은
 이후부터 딜러가 나누어준 모든 카드의
 가치의 합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었다 .
 머리카락 속에 들어간 손은 단 한가지
 만을 의미했다 . 카지노를 떠나라 . 지금
 당장 .
 케빈은 운동가방을 어깨에 둘러메고
 보라색 칩들을 주머니 마다 쏙셔 넣었다 .
 딜러가 그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물었다 . “고액 칩으로 바꾸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

어쩌면 딜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는지도 몰랐다 . 케빈이 막 팁을
 주려는 순간 신사복차림들이 눈에
 들어왔다 . 신사복을 입은 3명이 가장
 가까이 있는 크랩스테이블을 돌아오고

있었다 . 하나같이 커다란 덩치에 이쪽을
노려보면서 . 인사치레 주고 받을 시간은
없었다 .

“됐어 .” 케빈은 테이블에서
뒷걸음질치며 말을 이었다 . “내 바지
주머니 속에서 칩들이 덜그럭 거리는 게
훨씬 좋거든 .”

그는 돌아서서 빠른 속도로 걸기
시작했다 . 그들이 머리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바로 “하늘의
눈 ”이라고 불리우는 감시 장치를 통해서 .
그러나 , 자신을 잡으려고 소동을 벌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돈을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이었다 .
그래도 ,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었다 . 만일
신사복차림들이 자신을 붙잡는다면 ... 그
이후의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었다 . 뒷 방 . 겁주기 전략 . 때로는
폭력까지 . 이 동네가 제 아무리 새로운
모습으로 꾸미려고 애써도 깊숙히
들어가면 베가스는 여전히 베가스였다 .
오늘밤 행운의 여신은 케빈 편이었다 .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카지노 밖으로 나와
불야성을 이루는 스트립대로를 가득 메운
관광객들 속으로 섞여들 수 있었다 . 1분 후 ,
그는 길 건너편 네온사인인 현란한 택시
승강장 앞 벤치위에 앉아 있었다 .
운동가방은 무릎에 올려놓은 채로 .
카지노에서 신호를 보냈던 아까의
빨강머리 미녀가 담뱃불을 붙이면서
옆으로 털썩앉았다 .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 “정말 빌어먹게 아슬아슬했어 . 그
인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걸어
나온거야 . 윗층에서 게임내내 지켜봤던 게
틀림없어 .”

케빈은 머리를 끄덕여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다 . 자신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
가슴은 온통 땀에 절어 있었다 . 이보다 더
근사한 기분을 맛볼 수는 없었다 .
“오늘 밤은 이 걸로 끝내야 할까 ?” 그녀가
물었다 .

케빈은 미소로 응답했다 .
“스타더스트에서 하자 . 거기선 아직도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

그는 가방안에 손을 넣어 가득찬
 지폐뭉치를 더듬었다 . 모두 백불짜리로
 백만불이 약간 넘는 액수였다 : 케빈이
 관리하는 판돈으로 그 돈의 일부는 6개월전
 그를 끌어들인 베일에 쌓인 투자자들의
 돈이었다 . 이들은 케빈을 낚아빠진 아파트
 버려진 창고 , 심지어 MIT교실등지에 마련된
 가짜 카지노에서 훈련시켰다 . 그리고
 나서는 , 네온사인으로 뒤덮힌 이
 스트립대로로 내보낸 것이었다 .

케빈의 친구들 대부분은 지금 이 시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 맥주를
 마시거나 , 보스톤 레드삭스팀의 성적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 그는 그러나
 이 곳 라스베가스에서 남의 돈 백만불로
 스틸만점의 삶을 살고 있었다 . 곧 , 이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릴지도 몰랐다 . 하지만 ,
 케빈은 상관하지 않았다 .
 그가 이 시스템을 계발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 그는 단지 그 것을 이용할 줄 아는
 극소수의 운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 중
 한명일 뿐 ...

제 2장 (or 두번째)

보스턴 , 현재

백불짜리로 2만 5천불이 양쪽 허벅지에
나뉘어 묶여 있었다 . 5만불은
벨크로 (역주 :흔히 찌찌이라고 불리며
가방이나 옷등에서 이음새 연결시 접착식
테잎처럼 쓰임)가방에 넣어 가슴에
테잎으로 붙여놓은 상태였다 . 또다른
5만불은 내 상의 주머니에 가득차 있었고
10만불은 등허리 부분에 숨겨져 있었다 .
미술린 타이어 맨과 마약거래상의 중간
쯤 되는 기분이었다 . 몸은 잔뜩 부풀어
오르고 신경은 곤두선 채 , 회전 유리문을
지나 로간 공항청사로 들어갔다 .
에어컨으로 차가워진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 잠시 멈춰서서 갈 방향을
가늠했다 . B청사는 메모리얼 데이 (역주 :
한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공휴일) 연휴를
맞아 보스턴을 떠나는 대학생들로 붐비고
있었다 . 배낭을 메고 , 험렁험렁한 밑단이
끌리는 청바지 차림에 , 야구모자를 쓰고
운동가방을 든 대학생들로 모든 사람이
제각각의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안무되지 않은 발레를 --- 현대적인 미국의
공항에서 볼 수 있는 --- 보는 느낌이였다 .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물결에 합류했다 .
타일이 깔린 바닥위를 걸어가며
여기저기 굽힌 자신의 낮은 가죽구두를
내려다보면서 계속 시선을 낮추었다 .
편하게 행동해야지 , 편하게 생각해야지 ,

그냥 편하게 있어야지 ... 내 등에 묶어진 새
 BMW 한 대 가격 만큼의 돈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은 침실이 2개인 콘도를 살 경우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액수라는 것도 생각않으려 했다 .
 다른 사람과 똑 같이 보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 대학생으로는 안보이더라도 ,
 대학원생이나 조교 혹은 짐 나르는 것을
 거들어주러온 오빠나 형으로는 통할 수
 있을테니까 . 이 모든 불협화음 , 즉
 연방항공국 주레리포트에 포함되는
 통계의 일부분인 것처럼만 보이면 되는
 것이다 . 편하게 행동해야지 , 편하게
 생각해야지 , 그냥 편하게 있어야지 ...

갑자기 , 스톤헨지 거석의 현대판이라고
 할 거대한 조형물이 앞에 턱 나타났다 : 두
 대의 공항용 금속탐지기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옆에서는 허리높이의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상자모양의 엑스레이
 투시기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
 맥박이 빨라지는 가운데 속으로 내
 차림새를 점검했다 . 소매밖으로 지폐
 뭉치가 보이지도 않고 셔츠의 단추 사이로
 지폐 한 귀퉁이가 삐죽이 나와 있지도
 않았다 . 줄을 따라 앞으로 움직였다 . 내
 앞에는 배꼽 청바지를 입은 예쁘장한
 갈색머리 여성이 서 있었는데 나는 그녀가
 들고 있던 스티커로 뒤덮인 커다란
 수트케이스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걸
 도와주겠다고 자청하기까지 했다 .
 편하게 행동해야지 , 편하게 생각해야지 ,
 그냥 편하게 있어야지 ...

“다음 .” 회색의 로간 공항 유니폼을 입은
 키 큰 흑인여자가 내 차례라고 손짓했다 .
 오른쪽 견장에 이름표가 달려있었지만 ,
 나는 흘러내린 땀으로 눈이 따가와 읽을
 수가 없었다 . 짹짜게 ---그러나 별 일 아닌 듯 --
 -눈을 깜박여 땀을 털어내고는 벽에서
 뜯어낸 문틀처럼 보이는 금속탐지기를
 걸어서 통과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금속을 찾기 위해 내 몸속을 훑고 지나갔다 .
 숨쉬기가 편해지는가 싶은 순간 , 고성의
 금속음이 비명처럼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

이름표를 단 그 여직원이 내게
 탐지기를 다시 통과하라고 지시했다
 “주머니안에 든 금속물질은 다 꺼내고 다시
 한 번 지나가십시오.”
 목이 막혀왔다. 손은 본능적으로
 저고리 아래에 불룩 솟은 곳으로 뻗었다.
 백불짜리 지폐뭉치들을 허리와 다리에
 두르고 나니, 내가 마치 치질용 좌약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기랄, 핸드폰을 빼놓는 걸
 잊어버렸잖아.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의식하며
 코트속으로 손을 넣어 노키아 핸드폰을
 찾았다. 그 여직원의 시선이 내게 고정된
 것이 느껴졌다. 만일 그녀가 내게 외투를
 벗으라고 하면 끝장이었다. 여기저기
 불룩한 모습을 볼 것이고 그러면 만사가
 틀어지는 것이다. 물품신고를 하지 않고
 공항의 보안시스템을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사례들에 관한 자료조사를
 하느라 지난 6개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관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보안요원은 48시간동안 적발된 사람을
 구금할 수 있다. 창문이 없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로는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채워놓기도 한다. 이어 연방
 마약단속국 (DEA: Drug Enforcement Agency)이나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을 불러들인다.
 물건을 압류하는데 때로는 영수증도 주지
 않는다.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여러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여러통의 편지를
 써야하며 수도 없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아마도 6개월, 어쩌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동안, 연방국세청 (IRS) 직원들은 마치
 회색양복을 입은 메뚜기 떼처럼 당사자를
 덮칠 것이다. 봉지에 든 백색가루를 사려고
 돈을 운반하는 중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적발된 당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세관 직원들은 돈에서 코카인
 냄새를 맡기 때문이다. 특히 1백불짜리
 지폐들은 더더구나. 유통중인 1백불짜리
 지폐의 95퍼센트에는 극소량의 코카인이
 조폐과정에서 돈의 섬유질 성분에

들어간다고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 다시
 말해서 특수 훈련된 세관용 개들은
 마약거래상들을 집어내기 전에 직업적인
 블랙잭 도박사부터 더 빨리 냄새로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개들한테는 ---그리고
 세관요원들에게도 --- 마약상과 도박사는
 같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
 공포로 등이 흠뻑 젖는 가운데 나는 그
 여직원에게 내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
 그녀는 마치 한 번도 핸드폰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들여다보더니 앞 뒤로 한번씩
 뒤집어 보고는 내게 돌려주었다 . 내
 뒤에서는 매듭달염한 셔츠를 입은 한 젊은
 친구가 컨베이어 벨트위에 화분을
 올려놓으려 애쓰고 있었다 . 이름표를 단 그
 여직원이 그 모양을 보고 눈동자를 굴렸다
 그러더니 , 고맙게도 , 내게 지나가라고 손을
 흔드는 것이었다 .
 “다 되었습니다 . 좋은 비행 되십시오 .”
 비행기 탑승장으로 쓰러질 듯
 걸어가면서 나는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 어메리카 웨스트 69편 . 보스턴
 출발 베가스 직항 . 금요일 밤의 네온사인
 특급 . 사람들이 수속대 앞에 이미 줄을 서
 있었다 : 떠들석하고 , 술에 취한 채 ,
 대부분은 남자들로 기대감에 들뜬 모습이
 확인했다 .
 케빈 루이스가 조용히 줄 뒷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 나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 큰 키에 , 운동선수 같은 몸매 ,
 그러나 어깨는 수줍은 듯 살짝 굽어 있었다
 검은 머리 , 검은 눈 , 널찍하고 소년같은
 얼굴이 술많은 검은 머리밑으로
 자리잡았고 어딘가 이국적이지만 , 그
 이상은 어느 계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이었다 . 그의 혈통은 동양계 , 라틴계 ,
 아니면 이탈리아계나 러시아계라고 할
 수도 있었다 . 나처럼 , 그도 비행기에
 오르는 대부분의 대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 무리속에 쉽게 동화되었다 .
 그의 나이는 스물 한살로도 , 스물 여섯살 ,
 아니면 서른 다섯살로도 보였다 . 청재킷을
 입고 야구모자를 쓰면 보스턴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도 통할 것 같았다 .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 월가의 증권맨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 지금은 , 그는 MIT스웨터와
험렁한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 전형적인
MIT생의 차림으로 그의 부모가 선망하는
모습이었다 .

그는 내 달아오른 뺨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 “그게 바로 내가 느끼는 거지 .
날마다 .”

그의 호기는 살짝굽은 어깨를 통해
느껴지는 수줍음과는 일치되지 않았다 .
여러면에서 케빈은 고전적인 MIT의
전형이었다 . 그의 이력서는 완벽했다 :
특출한 아이들만 가는 뉴 햄프셔의
기숙학교 엑세터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학과 과학의 신동 . 숫자에 대해 놀랄만한
재능을 가진 전기공학도 , 전과목
A학점으로 의예과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 또 한편으로는 도전자체가
그를 흥분시켰기 때문이었다 .

그러나 케빈의 이력서가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아니었다 . 그의
인생에는 다른 면이 있었다 . 바로 그의
네온사인과 보라색 카지노 칩으로 쓰여진
또 다른 단면 .

보스턴에서 MIT를 다니면서는 전과목
A학점을 받았었다 .

라스베가스에서는 마이클 조던 , 하워드
스턴 , 데니스 로드맨 ,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와 파티를 즐겼다 . 엘에이 램즈
팀의 치어리더와 데이트를 즐겼고
플레이보이지 모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 루이지애나의 선상카지노에서
쫓겨나기도 했었고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팀 동료가 내쫓기는 것도
보았다 . 바하마 감옥에 갇힐 뻔한 것을
간신히 모면하기도 했다 . 연방국세청의
감사를 받았고 , 사설탐정들의 추적을
당했으며 , 허리에 권총을 차고 그늘진
경력을 지닌 무리들이 그의 사진을
지구 곳곳에 팩스로 전송하기도 했었다 .
이 과정에서 , 그는 작지만 한 재산
모았고 돈은 백달러 묶음들로 나눠 자신의
침대옆 옷장에 보관했다 . 아무도 그가

얼마나 벌었는지는 몰랐지만 소문에
 의하면 1백만불에서 5백만불 사이로
 짐작되었다 . 모두 합법적으로 판 것이었고
 그 중 단 한 푼도 그의 완벽한 , 전형적인
 이력서 덕분에 아니었다 .
 수줍고 , 공부벌레이고 , 성격좋은 케빈
 루이스는 거의 4년간을 이중인생을
 살았었다 . 이제 나는 그의 이야기를
 하려한다 .

“벨크로가 당은 살이 가려워 ”가 내가
 케빈과 악수하며 생각해 낸 말의 전부였다
 “판돈을 나르는 더 쉬운 방법이 있을텐데 .”
 그는 씩 웃으며 머리를 한 쪽으로
 기울였다 . “물론이지 . 가짜 우산 . 엉터리
 랩탑 컴퓨터 . 기부스에다가 속이 빈 목발도
 있지 . 한 때는 온갖 기기를 동원했었지 .
 제임스 본드 식으로 . 하지만 속이 빈
 목발을 FBI에 설명하기는 벨크로 테잎보다
 훨씬 더 어렵다네 .”

내 몸에 25만 달러를 테잎으로 붙여놓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었다 . 하지만 , 케빈은
 정말로 진지했다 . 그는 우리 거래의
 자기몫을 수행하고 있었고 , 그것은 바로
 외부인 어느 누구도 들어본적이 없는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

내가 케빈 루이스를 만난 것은 거의
 7년전 , 보스톤의 한 술집에서였다 . 그가
 MIT를 떠나기 두어 해 전에 나는 이미
 하버드대를 졸업한 상태였는데
 우리에게는 공통의 친구가 몇 명 있었고
 스포츠 , 대학가 술집에서 늦은 밤 보내기
 와이드스크린 TV같은 공통의 취미도
 있었다 . 서로를 소개받았을 때 나는 막
 발돋움하는 작가로서 첫번째 소설을
 출간할 참이었다 . 내가 아는 한 , 케빈은
 일종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가 거기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 적은 없었다 . ---아마도 내가 물어보고
 싶을 만큼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리라 .
 케빈은 너무나 전형적인 MIT졸업생으로
 보였다 : 타고난 엔지니어로 , 처음 그를
 만난 이후 수년동안 내가 작가로서 경력을
 쌓아가면서는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 그를 다시 만난 것은 거의 6년 뒤로
 펜웨이 파크에서 몇 블럭 안 떨어진 한
 아파트의 수퍼볼 파티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였다 . 케빈은 라스베가스에서
 “업무 ”를 보고 돌아온 길이었다 .
 수퍼볼게임 전반전이 끝나고 TV에서 중간
 쇼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케빈과 단둘이
 부엌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 짧은
 인사치레를 교환한 뒤 , 케빈은 놀랍게도
 목소리를 낮추더니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 “자네의 다음 책의 재료가
 될 멋진 이야기를 갖고 있네 .” 라면서 그는
 말문을 열었다 .
 나는 그 순간 즉시로 부엌을 벗어날
 궁리를 했다 . 다른 모든 작가들처럼 ,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이미
 수천번이나 들었었다 . 사람들은 누구나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야기를 하나씩은 갖고 있었다 : 내가
 봐서는 , 가상세계를 대신할 만큼 흥미있는
 현실은 드물었다 .

그러나 케빈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을 때 , 나는 목 뒤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 다른 각테일
 파티들에서 들은 수천가지 이야기들과는
 달리 , 케빈의 이야기에는 고도로
 흥미진진한 , 영화적인 스릴러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었다 ---
 하지만 , 그의 이야기는 사실 이었다 . 케빈이
 내게 털어놓은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 그는 그 삶을 살았었다 , 1분도
 거르지 않고 , 그리고 이제 그는 내가 그의
 삶을 종이 위에 옮기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
 “왜지 ?” 놀란 나는 그 이유를 물었다 .
 케빈은 그러나 결코 내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않았다 . 시간이
 흐르면서 , 나는 나름대로 그 답을 이리저리
 짜_추려고 시도했다 .
 케빈은 엄청난 어떤 일의 한
 부분이였다 . 그와 그의 친구들은 베가스
 역사의 가장 큰 계책중 하나를 저질렀다 ---
 게다가 아무도 그 내용을 쥐뿔만큼도 알지
 못했다 .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은
 만인 앞에서 그 경험을 되살아보려는 그

나름의 방식이었다 . 자신에게 , 또 관심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방법 .
무엇보다도 , 그것은 케빈이 스스로의
선택 , 자신으로 하여금 이중의 삶을 살게 한
그 결정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
그의 선택중 많은 부분이 외부에는
비도덕적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었다 .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 케빈은 그가 한
일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해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다시 말해서 , 그의 이야기는 일부는
자랑 , 일부는 고백이었다 . 나로서는 , 그냥
듣고만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근사한
소재였다 .

수퍼볼 경기가 다른 방에서 중계되고
있는 동안 , 케빈이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 그는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약속했고 ,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과 그의
생활방식에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 자신의 도박시스템도 가르쳐 줄
것이고 카지노의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

대신 , 나는 그에게 그가 빛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

케빈의 이중생활을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의 거래를 통해 내가 엄청난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마침내
글로 오피길 준비가 끝나 책상 앞에 앉으니 ,
케빈의 이야기가 마치 현란한 총천연색의
베가스 쇼처럼 내 눈앞을 섬광처럼
스쳐가는 것이었다 ...